

# 봉암사 일대 국제선센터로 '일신'

## 부지매입 마쳐... 수불 스님 종정 표창, 신현국 시장 총무원장 표창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일대에 들어서는 국제선센터의 건립 기반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10월 19일 봉암사 국제선센터 건립과 관련,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종정 표창과 총무원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이번 수불 스님의 종정 표창은 9월 26일 봉암사(주지 원타가 매입한 회양산 일대 석탄광사 부지 111만9471㎡(33만4600여 평)에 대한 것으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부지 매입대금 9억 7600여 만원을 전액 기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당초 이 지역은 문경시의 개발규제 완화와 조계종의 매입 지원에 따라 타종교 수련원과 골프장 등의 건립이 추진돼 많은 우려를 낳았다. 총무원장 표창을 받은 신현국 문경시장은 봉암사 환적대, 동암 등 가람보수를 비롯해 봉암사 극락전 등 문화재 보물수급, 봉암사지중대사적조립비의 국보신청 등 행정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종정 표창을 받고 있다.

신 시장은 무허가 상태인 봉암사 18개 건물을 양성화하고, 봉암사 필지를 종교용지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문경지역 사찰 정비 등 지역불교발전에 앞장 선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문경 지역과 봉암사는 산세가 뛰어나 나옹 선사 등 역대 고승이 배출된 곳"이라며 "국제

선센터 건립은 종립선원 발전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수행풍토 진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수불 스님은 "매입대금을 3년 간 분할상환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일시 상환할 수 있었던 것은 안국선원 신도회의 도움과 불자들의 뜻이 한데 모인 덕분"이라며 "간화선 등 선문화 보급과 진작에 더욱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석탄 사용 감소로 문경지역이 침체를 겪었지만 최근 명상웰빙타운, 전통차사발 축제 등 정신문화 보급으로 연간 500만 명이 찾고 있다"며 "불교문화재 30점과 전통사찰 7곳이 산재한 불교의 고장, 문경에 선센터까지 들어서면 정신문화의 분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암사와 문경시는 향후 봉암사 일원을 역사·문화 공간으로 설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서는 한편 국제선센터 건립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10일 봉암사와 문경시는 2020년 국제선센터 건립을 목표로 총 600억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16년까지 386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1단계 사업계획에 따르면 국제선센터에는 예불 공간 5동, 선원공간 9동, 포행공간 21동, 지원시설 3동 등 총 41개동의 자연친화적 전통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산문 열어 중생 제도하니...

## 동화사 1516주년 · 은해사 1200주년

대구 동화사와 영천 은해사에서 개산대제가 잇달아 거행됐다.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는 10월 17일 개산 1516주년 개산대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을 비롯해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부도전 헌다와 헌공다례 의식을 시작으로 개산조인 극달 조사의 영정을 이운하는 의식이 이어졌다.

기념 법요식과 성보박물관 기획 전시 개관식, 보살계 수계식, 만공불사 점등식 등이 차례로 저녁까지 동화사 경내 일대에서 진행됐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인사말

에서 "역대 조사들이 대가람 동화사의 산문을 연 것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웃과 사회를 고통에서 구하려는 수행과 자비의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인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은 축사를 통해 "개산의 의미는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고자 하는 보살심이 구현됨을 뜻한다. 동화사 개산대제가 불교를 쉽게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일에는 팔공산 은해사(주지 둔관)에서 1200주년 개산대제가



10월 17일 열린 대구 동화사 개산대제에는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열린데 이어, 20일에는 경내 극락보전 앞에서 법회를 가진 뒤 그 동안 개산대제를 적극 지원한 지역불자들이 표창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둔관 스님은 청통 자율방범대와 은해사 교사불자회 등 13개 단체에 감사패를 전했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 "초심 잃지 말고 보살의 길 가자"

## 조동종 극락사 16일 진산식 · 이운법회 봉행

조동종 장호원 극락사(주지 해덕)는 10월 16일 진산식 및 이운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승정부원장 법공 스님, 승정의원 원봉 스님, 사회부장 해산 스님을 비롯해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공 스님은 법문에서 "호국불교 목조선사의 조동법맥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점안식을 하기 전의 조동종 장호원 극락사 법당의 불·보살상.

"위로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아래

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해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불자가 곧 부처임을 생각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수행정진 하자"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 한강 발원지서 생명을 보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16~19일 '생명과 시원의 만남'을 주제로 제6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각종 공연 및 전시, 불교문화체험 공간 등 70여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종합불교문화행사가 열렸다.

행사 첫 날 적광전 앞 중앙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이희중 강원일보 사장, 최홍집 강원도 정부부지사, 한장수 교육감, 송강호 강원지방경찰청장, 권혁승 평창군수, 김영해 평창군의회장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자리해 축전의 시작을 축하했다. 정념 스님은 인사말에서 "물이 중요한 이유로 떠오른 때 '생명과 시원의 만남'을 주제로 한강시원제 등을 열게 됐다"며 "오대산 우뚝수를 물의 시원, 생명의 시원으로서 승화시키고 한강과 더불어 우리 국토를 생명이 그대로 본연의 모든 모습을 드러낼 수

##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10월 16~19일 성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이 10월 16~19일 평창 월정사에서 열렸다. 사진은 월정사 아래 금강연에서 가진 한강 시원 샘물의 합수식 장면.

있는 환경을 가꾸자"고 축전의 취지를 강조했다.

개막식에 이어서는 자장 울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부처님 진신 사리를 오대산으로 모신 과정을 재연한 '진신사리 이운식'도 봉행했다.

한강의 시원이자 근원인 오대산 각 대에서 솟구치는 신성한 샘물인 중대의 옥계수, 동대의 청계수, 서대의 우뚝수, 남대의 총명수, 북대의

감로수를 금강연에 합수하고, 천연 기념물인 얼골어와 돌고기, 참갈겨니, 격지 등 3000여마리를 방생해 모든 생명이 상생하는 삶을 기원했다.

둘째 날에는 화생백일장 및 학생 미술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문화행사와 강원지역 불교합창단 창설기념행사가,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문수보살 헌다례, 전국차인대회, 불교종단의 다례법 시연 등이 열렸다. 이극래 강원지사장

# 방생용 어류 양식장 박성호 거사

불교에서 방생은 생명의 존엄성을 깨우쳐 주는 의식이며 선업을 짓는 자비행이다. 죽어가는 물고기를 놓아주고 굶주린 새나 동물들에게 식량을 나눠 주는 의식을 통해 생사고해에서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방생의 의미는 매우 깊다.

이런 가운데 남해 돌곶리 은점부락에 거주하는 박성호 거사가 방생용 어류를 양식하고 방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 불자들을 기다린다.

박 거사는 방생된 물고기가 얇은 물에서 숨을 헐떡이는 것을 보고 이것은 잘못된 방생이라는 생각이 개인 토지 600여 평에 양식장을 만들었다. 양식장에는 방생할 수 있도록 배와 빠지 등 모든 장비를 갖췄고 어촌체험도 할 수 있게 했다.

박 거사는 "방생을 원하시는 대덕스님 및 불자들이 연락을 주면 정성껏 인도하겠다"고 말했다. 018-574-0991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 경로위안문화제 14일 태고종 청룡사

노인의 달을 맞아 태고종 청룡사는 10월 14일 오후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6회 경로위안문화 예술제를 봉행했다.

이날 예술제에는 평양민속예술단 초청공연 등이 펼쳐졌다. 특히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등 5개 복지기관에서 그동안 배운 부채춤 등을 펼친 어르신들의 장기자랑이 눈길을 끌었다.

대한노인회 오남진 대구시연합회장은 "전통문화의 가치관이 상실된 오늘날 효호상상과 도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 문화재 지킴이 봉사대상 신유경 양 등 15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려

청주불교방송(사장 현우)이 주최하고 충북파라미터청소년협회가 주관한 제1회 문화재 지킴이 봉사대상 시상식이 10월 15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렸다.

이번 제1회 문화재 지킴이 봉사대상은 봉사활동 분야와 봉사활동 우수사례 분야, 문화재 지킴이 교육활동 분야로 나눠 시상했다.

충북도교육청상인 대상은 초등부 에미원초교 신유경양 등 3명, 중등부 에미원초교 3학년 김예린양 등 3명, 고등부에 대한고 박준재군 등 3명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지도교사 부문 대상에는 오창고 김수운 교사 등

3명이 수상했다. 또 금상인 청주불교방송사장은 형석고 박수지양 등 9명이 각각 수상했고 은상인 청주시장상에도 대원고 김태원 군 등 9명이 영예의 수상을 했다.

현우 스님은 "충북도 내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를 통해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본 상을 제정했다"며 "청소년들이 외국의 새로운 것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를 통해 우리 것을 바로 알고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철 충청지사장

### 「사단법인 명상문화연구원」 설립기념 '인도순례' 프로젝트

# 불교성지 및 명상문화 테마기행 동참순례자 모집

사단법인 명상문화연구원은 '명상은 삶의 본질'이라는 기본정신을 토대로 쉽고 효과적이면서도 다양한 명상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명상의 대중화를 통한 수행과 봉사적 삶을 선도함으로써 그 삶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설립된 명상수행연구기관입니다.

사단법인 명상문화연구원은 이 같은 설립취지를 현실 속에 구현하고 우리의 명상문화를 보다 성숙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순례' 프로젝트를 마련 하였습니다. 금번 명상문화연구원이 설립기념으로 준비한 '인도순례' 프로젝트는 불교 7대 성지순례를 비롯하여 그동안 인도여행에서 좀처럼 경험할 수 없었던 복인도 및 남인도 명상기행과 용수보살 유적지·아잔타석굴 등을 돌아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의 수화동참을 바랍니다.

## I. 순례팀별 주요일정 및 비용

**B팀 (2010년 1월 9일~1월 19일 9박11일) 237 만원**  
인도성지순례+북인도명상기행

인천-델리(오로빈두아쉬람/티베트하우스)-기원정사-롬비나-쿠시나카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리즈기르-보드기아-바라나시-아그라-델리-하이데라바드-나가르주나콘다(용수보살 유적지)-비자야와다(아마라비타대탑)-첸나이-마하발리푸람(남인도 세계문화유산)-폰디체리(오로빌 명상센터)-칸차푸람-첸나이-인천

**C팀 (2010년 1월 15일~1월 24일 8박10일) 267 만원**  
아잔타석굴+용수보살유적지+남인도명상기행

인천-롬비나(엘레판트 석굴)-오랑가바드(아잔타/엘로라 석굴)-하이데라바드-나가르주나콘다(용수보살 유적지)-비자야와다(아마라비타대탑)-첸나이-마하발리푸람(남인도 세계문화유산)-폰디체리(오로빌 명상센터)-칸차푸람(남인도 세계문화유산)-첸나이-인천

## II.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모집 기한 : 2009년 11월 30일(월)까지 각 팀별 60명 선착순
- 신청 및 접수 :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FAX: (02)734-9937 E-mail : [silkroadtour@korea.com](mailto:silkroadtour@korea.com) \* 상세일정표와 준비사항은 신청접수 후 개별통지
- \* 주관여행사로는 불교성지순례 대표여행업체인 (주)실크로드여행사(대표 이상원)를 선정하였습니다.

**(사) 명상문화연구원** 이사장 수봉세민 (조계사 주지)  
원 장 만월현종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113호 Tel : 1577-0373

\* 금번 '인도순례 명상기행'은 본 법인이사이며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회장인 김선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지도 및 안내를 맡습니다.